‘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

전주비빔밥축제 8개 외국어로 홍보

작년에 열린 ‘전주비빔밥축제’ 자료사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된다.

시는 전주비빔밥축제의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외국어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에 비빔밥축제를 소개하는 등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비빔밥축제가 소개된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어 홈페이지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타이어 등 8개다.

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했던 축제 홍보를 8개 외국어로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외국인이 축제 현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관광공사의 13개 해외 SNS 채널을 통해서도 비빔밥축제를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는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전 세계 SNS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외국인들이 직접 축제 현장을 방문해 경험한 비빔밥축제와 전주시 관광 명소 이야기를 세계 각국 자신의 고국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 팸투어도 축제 기간 진행된다.

팸투어에 참여하는 외국인 SNS 기자단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SNS와 각 출신지역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주시와 비빔밥축제를 알리게 된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전주비빔밥축제를 글로벌 음식 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축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다음 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송효철 기자

문체부 · 관광공사 · 13개 지자체, DMZ 평화관광 본격 ‘추진’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가 발족식을 열었다.

남북평화시대를 맞아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DMZ 접경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20일 정오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참여하는 광역 지자체는 인천, 경기, 강원 등 3곳이다. 기초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곳이다.

발족식에는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박준하 행정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강원도 송석두 행정부지사, 10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등이 참여해 앞으로 평화관광 추진 협조와 협의회 운영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과 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지자체 간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 개발, 평화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필요한 정책과 사업 추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한다. 그 아래에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협의회는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운영한다.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한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기존 분단과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 국한된 비무장지대 관광은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한 관광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사업도 크게 늘어난 동시에 관광과 생태보존의 공존을 위해 유사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막는 등 부처와 지자체가 조율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문체부 등 중앙부처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추진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 DMZ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조헌 작가의 초대전 ‘느낌의 무게’ 전시작.

느낌있는 전시회 ‘느낌의 무게’

삼례문화예술촌, 조헌 초대전 이달 말까지 진행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조헌 초대전 ‘느낌의 무게’가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완주군은 삼례문화예술촌 내 모모미술관에서 조헌 초대전 ‘느낌의 무게’ 전시회를 이달 말까지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헌 작가는 원광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 한 후 서울국제아트페어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작가다.

인간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실력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총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드로잉적인 느낌과 표현주의적인 작품들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사물의 존재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 관계자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은 문화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 문의는 삼례문화예술촌(070-8915-8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시회가 개최되는 삼례문화예술촌은 오래된 창고를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전국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에도 선정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고창 선운산으로 ‘꽃무릇 시화 전시회’ 보러 오세요

30일까지 시상작 52점 전시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지부장 문인순)가 주관하고 고창군이 후원하는 ‘제15회 꽃무릇 시화전시’가 20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다.

시상식은 29일 12시20분부터 꽃무릇 군락지인 선운사 만세루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공모전 출품작 113점 중 시상작 52점이 전시된다. 시상식에서는 학생부 금상으로 초등부 부안초 6학년 신희영 학생, 중등부에서는 고창여중 2학년 박소명 학생, 고등부에서는 강호항공고 1학년 송세은 학생이 수상될 예정이며, 은상 5명, 동상 8명, 일반부 6명 등 총 22명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된다.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 관계자는 “글과 그림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 시인들에게도 시문학의 감성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른이 되어서도 문학의 그리움으로 이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창문인협회는 고창문학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